"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겠다"

靑 "김여정,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 몰상식 모든 사태는 북한이 책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북한의 태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이며, 북한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측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윤 수석은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로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측의 특사 요청을 공개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사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제의한다. 그 자체가 비공개"라며 "그것을 공개한 자체가 비상식적 행위"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소개해드릴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할 수 없다"며 "나중에 안보실에서 그 부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전날 북한에 엄중 경고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현 정부 들어 가장 강경한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선 "현재 인식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남북관계 악화 책임질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여러가지를 고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강한 의회 만들터"

강용구 도의원, 후반기 의장 출마 선언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담대한 리더십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후반기 의장직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강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필요하다"며 "입법정책관실 신설 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일부 지역이 의장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차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동부산악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차원의 지역안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 목소리를 대변해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건의안 등을 수없이 발의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며 "전북발전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중앙 정치권과 소통강화를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

"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민주 김수흥 의원, 국회 기재위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첫 상임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을 관장한다.

김수흥 의원은 국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경제·예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과 재정지원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내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에 배정된 만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익산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국토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그린뉴딜 시대 여는데 최선"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내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이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에 내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14대 국회 후반기에서 환경부 및 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전북 의원 중 최초 환노위 간사를 맡게 되었다.

현재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환노위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한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인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유치, 완주 말골재터널 건설, 국도 19호선 장수~임실 및 국도 30호선 무주~설천 국도 개량 등 SOC 예산을 비롯해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과 전북도 2년 연속 7조원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정부여당의 환노위 간사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해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 시대를 전면적으로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겨레하나 "남북 공동선언 조속 이행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평화·통일 시민단체인 전북겨레하나가 남북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겨레하나는 1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를 다시 배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공표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남북 공동번영의 꿈도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모든 이들의 열망과 의지의 산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민족의 자산"이라며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후가 아닌 바로 지금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